승전고는 울린다!

박 승히 그림

화살

1962년 1월호 (150)

3- SEP 19
Copy 1962

《참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 오는 군요》

《아름 답다 마다요, 아 글쎄 지난 해에 3년 먹을 식량을 마련하다 보니 우리 집에서도 그저 온 식구가 홍타령 뿐이라니까요》

용해공의 말에 풍년 령감이 선참으로 이렇게 호응해 나서자 방직공이 뒤따라 받아 넘긴다.

《저 노래 소리 좀 들어 보세요 (노래'조로)… 실실이 천을 짜네 마음을 짜네… 얼마나 섬세해요 우리 방직공들은 벌써 새 해 첫 새벽에 천 무지개를 타구 한 바퀴 빙 돌았답니다》

《옳습니다 나두 봤지요》 이번에는 조립공이 말 참견을 하기 시작했다.《6층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 처녀들이 조기 운동들을 하느라구 공장을 한 바퀴 빙 도는데 정말 무지개 같더군요》

《아직 모르시는군요(다시 노래'조로)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아니, 이 동무가?… 아 그야 〈공화국 선포의 노래〉가 아니요》

《누가 아니래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3천리 강산을 적어두 200 번은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자는 거지요》

《200 번?!》 모두 눈이 휘둥그래진다. 이 말에 다시 조립공이 호응한다.

《바로 2억 5천만 메터의 천 고지가 그것을 말해 주지요》

《이번에야 동무도 요진통을 때렸군요 호호호…》

《허지만 제일 방정한 노래야 척척 맞춰 돌아 가는 데서 나오지요》(조립공)

《그럼은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노래도 척척 맞아 떨어져야…》(방직공)

《그러구 보니 동무도 동문서답을 곧잘 하시는구려. 에… 도시와 농촌 가는 곳마다 건설장이요, 기중기 소리 와르릉 거리는데 우리 조립공들이야 그저 공업적으로 생산한 크고도 가벼운 블로크를 표준화된 설계에 따라 척척 맞추기만 하면…》

《다음은 만'자 타령이요!》 이번에는 어로공이 불쑥 나타나 이렇게 웨치며 노래를 부른다.

《에헤영, 에헤영…》

《아니 만'자 타령이라면서 에헤영, 에헤영이 뭐요》 타령이라는 말에 어깨를 들썩거리던 탄부가 따져 묻는다.

《이제 곧 나오지요 에… 기술이 늘고 늘어 자망, 저예망에다 건착까지 혼자서 담당하는 만능선이 만가동을 하여 만선기 휘날리니 만세 소리 파연 우렁차여라!… 탄부 동무, 구미가 돕니까?》

《타령은 그럴듯 한데… 머 늙어 죽는 명태가 있다면서요?》

《명태가 늙어 죽어? 으하하, 으하하》

《거 정말 자다가도 웃을 소린데!》

너나없이 한 마디씩 던지며 배를 그러 안는 바람에 어로공도 어이가 없어 따라 웃는다.

《아닌게 아니라 한때 그랬지요. 그러나 지금이야 어림도 없지요 일체 선박들이 종횡무진으로 총 출동하여 도망치는 놈은 따라 잡고 다가 오는 놈은 맞받아 나가고, 게다가 밤이면 전광 어로법까지 도입하는 바람에 낙지, 까나리들이 꼬리를 치며 밀려드는데 우리야 그저 만'자 타령을 불러 가며 건져 낼 판이지요…》

《타령 타령해두 수천 척 막장에서 울려 퍼지는 밥 타령이 제일이지요》

《가만, 잠간만…》 풍년 령감이 대뜸 탄부의 말을 가로챈다 《탄광에서 밥 타령이라니?…》

《나두 모르지요 그저 모두들 공업의 밥 밥하며 1,500만 톤의 석탄 고지를 바라 보더군요》

《그럼 저두 한몫 낄가요》 덤덤히 앉아 있던 용해공이 점잖게 입을 뗀다.

《(시'조로) 오 이글거리는 용광로야, 철철철 네 입에서 120만 톤의 강철이 흘러 오만가지 기계 설비들을 협동'벌로, 바다로, 광산, 탄광으로, 건설장으로—어서 어서 린접 고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흐르고 흘러라!》

《과연 류창하웨다》《과연 예술성이 높웨다》《과연 무쇠 장군이웨다》

모두들 찬사를 보내는데 풍년 령감만은 《뭐니 뭐니해두 천하지대본이야 농사지요. 글쎄 500만 톤 고지에만 올라서면 하늘이 무너져도 든든하다니까요》 하며 소담한 쉬염을 슬슬 내리 쓰다듬는다.

《자 여섯개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용해공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저저마다 자기의 결의를 다진다.

《첫째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해야 하구요》(방직공)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적인 기술 혁신이지요》(탄부)

《무엇보다도 공업과 농업에서 청산리 정신을 관철해야지요》(용해공)

《게다가 높이구 낮추기만 하면야…》(조립공)

《높이구 낮추다니?》(어로공)

《아 그야 뻔하잖소 우선 생산을 부쩍 높여야 할테니…》(풍년 령감)

《그렇지요 공업에서는 생산 면적과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구요》(용해공)

《모든 원자재의 소비 기준량을 쭉쭉 낮추구요》(조립공)

《그러면 자연 원가는 낮아지구요》(방직공)

《그렇지요 그러니 생활 수준도 자꾸 자꾸 높아만 지지 않습니까》(어로공)

《새해의 노래여, 6 개 고지를 향하여 더욱 높이높이 울려 퍼지라!》(일동)

유 진용

든든한 길차비

—이만하면 일분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조 영식 그림

청산리 농업 협동 조합 천리마 작업반장 문 정숙 동무의 결의

—우리 조합에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금년에 우리 작업반에서는 40 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고 토지를 개량하여 집약적 농법을 도입함으로써 금년도 알곡 생산 계획을 170% 이상 초과 완수할 것을 결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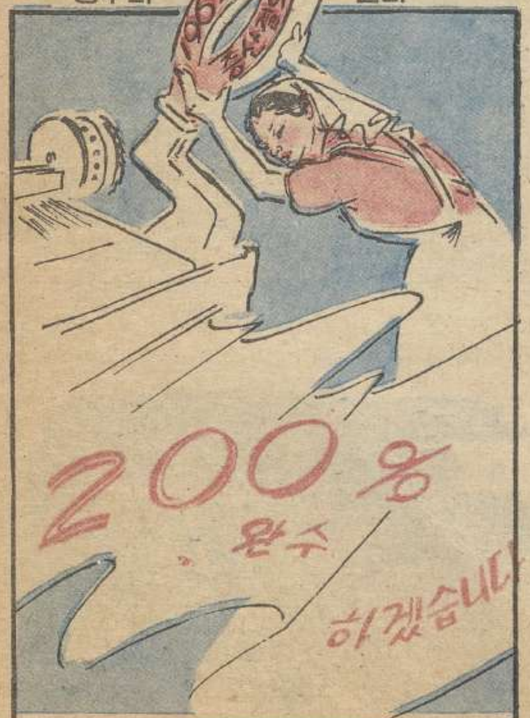
강선 제강소 강철 직장 《1211 고지로》 천리마 작업반장 임 능혁동무의 결의

—나는 전기로의 산소 취입법을 완성하여 제강 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년 21만 톤의 강철 생산을 꼭 보장하겠습니다.

신창 탄광 김 병빈 천리마 작업반장의 결의

—저의 작업반은 분괴식 채탄 방법을 적극 도입해서 900 톤의 석탄 산을 매일 선물할 것을 결의합니다.

평양 방직 공장 제3직포 직장 천리마 기수 리 명자 동무의 결의



—나는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1분 간에 꼭꼭 120 보를 뛸 것이며 《직물 표면 한 번 더 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신포 수산 사업소 로력 영웅 최 원준 동무의 결의

—저는 금년에 배 두 척을 움직이며 과학적인 어로 방법으로 맛있는 물고기 2천 톤을 선물하겠습니다.

평양시 서구 지구 공공 건물 건설 트레스트 청년 직장 직장장 (2중 천리마 작업반장) 윤 병권 동무의 결의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 점령을 위하여 나는 금년에 1인 4세대 이상 짓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토지에게 《영양제》를 준다

안 창수 그림

철수의 《창작 구상》

갑—(팔짱을 끼고 심각한 얼굴로 무대 우를 왔다 갔다 한다)

을—(등장)아니 철수, 자네 여기에서 뭘하나? 응…

갑—이 사람아, 나의 창작 구상을 방해하지 말게.

을—뭐 창작 구상?… 아니 그래 대관절 무슨 작품을 구상하는데—?

갑—벌써 석 달째 구상허구 있단 말이야.

을—엉…어허허허, 그런데 석달째 구상하는 게 여적 안 됐어?

갑—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담는다는 걸 알아야지.

을—대관절 무슨 문젠데?

갑—60만 동의 농촌 문화 주택 건설 문제를 주제루 헌단 말이야…

을—그거 아주 좋은 문제를 잡았네그려.

갑—구상두 이젠 거의 익어가구 있긴 헌데 그런데 말이야 일반적인 말만 가지군 실감이 안 나거던…

을—그렇지.

갑—그래서 구체적인 생활을 가지구 얘기허기루 했단 말이야.

을—어떻게?

갑—우선 남 녀를 등장시키는데, 이들이 무연한 넓은 들 한 가운데 널찍하게 자리 잡은 문화 농촌 마을에 척 들어 서거던…

을—뭐뭐… 이 사람아, 무연한 벌 한 가운데 널찍하게 자리 잡은 문화 농촌 마을—?

갑—그렇지, 아따 그래야 이 사람아 4～5 층으루 고층 건물을 지을게 아닌가.

을—아…아니 뭐 4～5 층고층 건물—?

갑—왜 뭐가 잘못 됐나?

을—농촌 건설을 그렇게 한다구 하던가?

갑—…글쎄?

을—글쎄라니, 허허허…정말 한심한 친굴세그래… 여보게, 농촌의 문화 주택 건설은 말이야

갑—어

을—농토를 침범하지 않도록 산 기슭이나 경사지에 배치한단 말이야

(노래조로) 산새가 우짖고 나무 가지 춤추는 양지 바른 산기슭 아늑한 곳에 우리 당은 새 집을 꾸려 준다오, 지어 준다오…

갑—여보게 그럼 내 구상은 파탄일세.

을—허허허 그러구 말이야

갑—어

을—집은 농촌의 생활과 실정에 맞게 단층집으로 하구 1동 1세대가 기본이란 말이야, 헌데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몸채에 창고, 변소, 우물, 정원은 물론이지만 이외에 두 《리》자 붙는 것만 해두 자그만치 너더댓개 된단 말이야.

갑—아니 여보게 《리》자 붙는거라니?

을—허허허…우선 돼지우리, 닭우리…

갑—오라 돼지우리 닭우리

을—그러구 토끼우리, 재우리, 울타리…

갑—허허허 그 참 그럴듯 하이…

을—자 그러니 얼마나 아담하구 쓸모 있구 정갈하구 아름답겠는가 …헌데 건 그렇구, 이 사람아 자네의 다음 구상을 이야기해 보게.

갑—다음 구상—?

을—그래

갑—좌우간 앞 부분 구상은 맹랑하게 됐네만 뒤 부분 구상은 내 마음에두 착 든단 말이야.

을—글쎄 어서 얘기나 해 보란 말이야

갑—에헴, 다음엔 남 녀가 건설 현장에루 갔는데 말이야

을—오라 련속 방송에 나오는 천복이와 만길이 식으로…

갑—그렇지, 헌데 평양에서 블로크를 실어오구 백두 밀림에서 미끈한 만년 대목을 실어 온다는데

을—뭐뭐 이 사람아

갑—그래서 척척 블로크를 맞춰 올리는데…

을—에끼 이 사람아

갑—아…아니 왜?

을—이 사람아 60만 동의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은 지방 원천을 적극 동원해서 짓는단 말이야, 저기 보게, 저 온석이며 천연 스레트며 그러구 농촌에야 깔려 있는게 석비레, 규산, 백토, 석재, 모래가 아닌가

갑—그렇지

을—그게 다 귀중한 건설 자재들이거던, 그러니 원가는 얼마 안 먹으면서두 시일은 앞당길 수 있구 일체 랑비는 없애면서두 집은 알뜰하게 꾸려진단 말이야

갑—(머리를 벅벅 긁는다.)

을—그러니 여보게, 작품 창작을 념내기 전에 우선 당 정책을 학습하구, 구상을 짜기 전에 현실을 연구하란 말이야

갑—옳아, 그래서 요 머리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가 돌대가리는 아닌데두 석달째 쥐어 짠게 그런 엉터리 구상이였네그려

을—그렇지, 허지만 이 사람아, 지금껏 우리가 주고 받은 얘기를 다듬어두 훌륭한 구상이 될 수 있어

갑—허허허…

을—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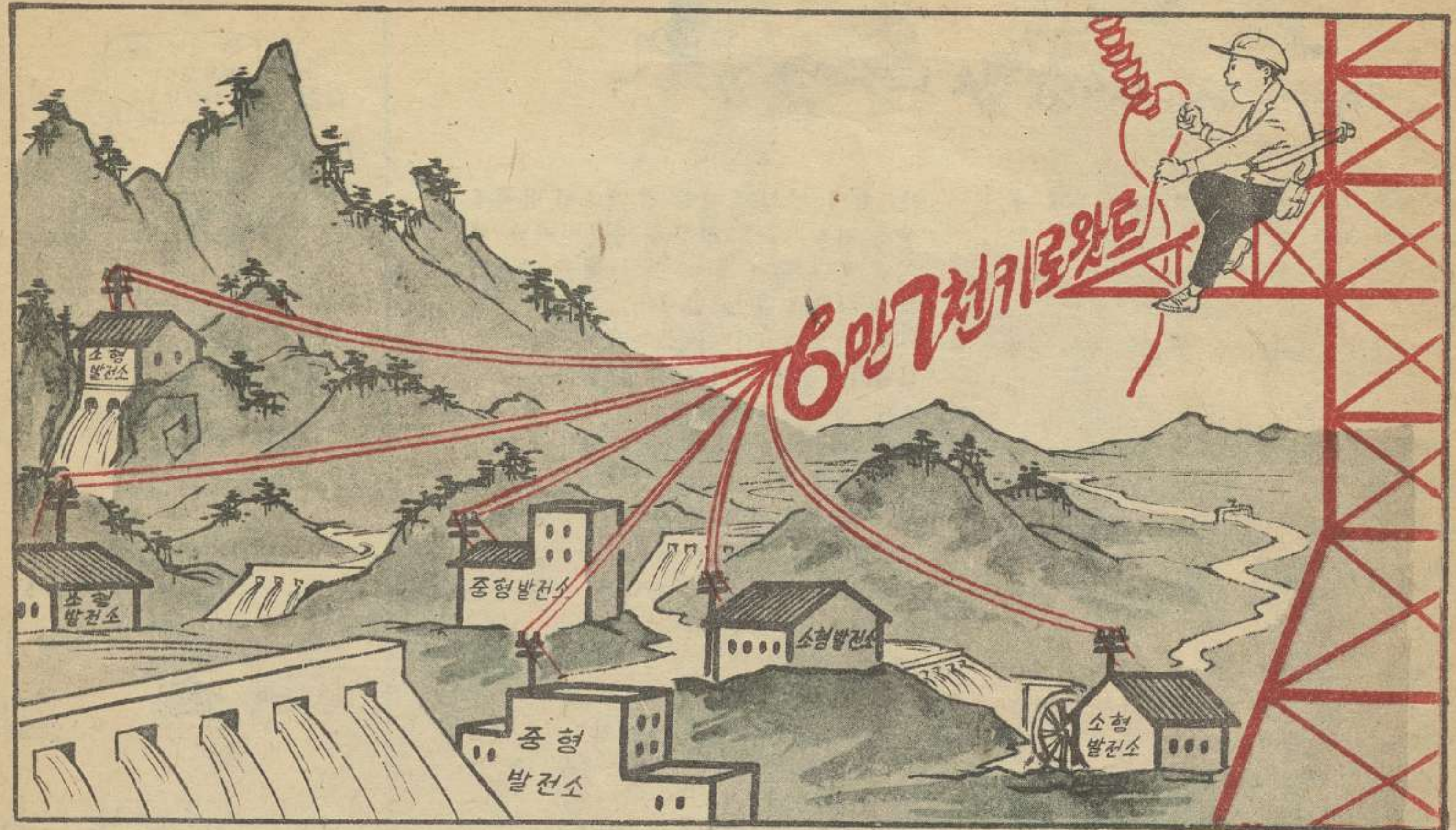
김 오준

오 해

공훈 광부 윤 덕만 동무의 가족 7 명은 모두가 1,500만 톤 석탄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로동 일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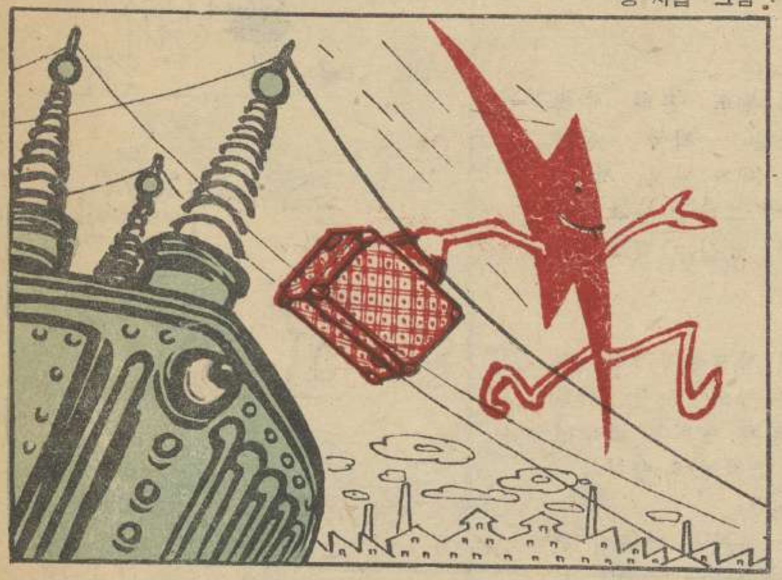
최 학신 그림

내가 모여 대해를 이루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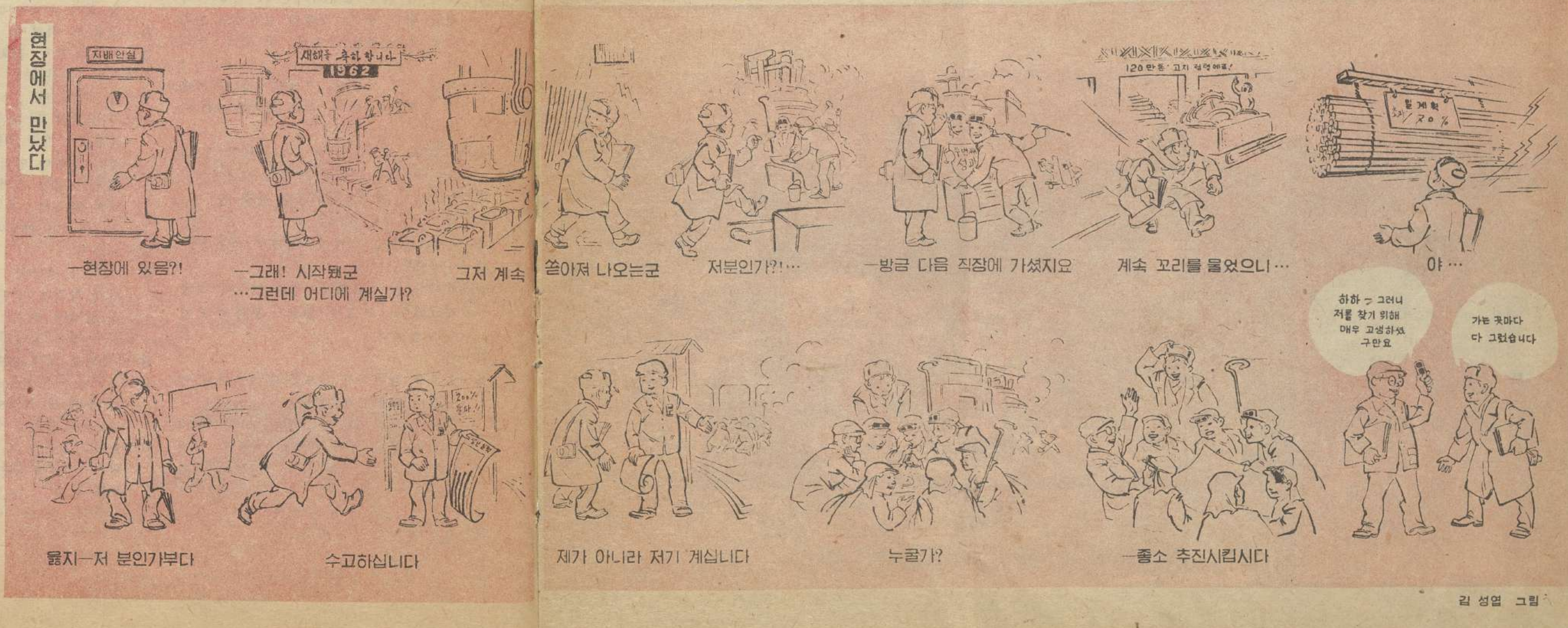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송 시엽 그림



—아니…자네 오자마자 어디로 가는거냐?
—나는 절약된 전기가 돼서
다른 공장으로 가네

강선 제강소에서는 전기로에 산소 취입법을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강철 톤당 소비 기준을 1010키로왓트시로부터 800키로왓트시로 저하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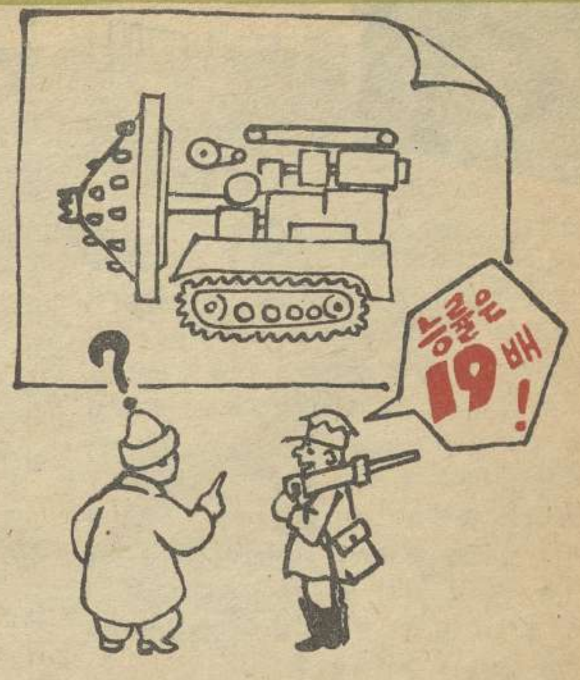


신포 수산 사업소 209호 선원들은 30기망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다.

김 윤섭 그림

고지 점령은 기계화전으로
(신창 탄광에서)

최 영근 그림



갑— 이건 무슨 설계입니까?
을— 새 무기의 설계 도면입니다.
갑— 새 무기라니요?
을— 이를테면 땅 속으로 다니는 지하 땅크지요.
갑— 지하 땅크라… 어떤 전투에 쓰입니까?
을— 예 그것은 금년도 1500만 톤 석탄 고지 점령의 일익을 담당한 우리 탄광 준비 굴진에 쓸 것입니다.
갑— 아하 그러니 여기서도 현대적 기계화전을 준비하고 있군요
을— 그렇지요 기계화 없이 석탄 고지를 점령할 수 없지요… 이 기계만 하더라도 하루에 54 메터나 굴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 그러니 돌격전의 땅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 성엽 그림

《꼬리 끼운 도적개》

오 흥태

속담에 도적개 꼬리 끼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도적개가 사람의 눈치를 흘끔흘끔 보면서 바쁜 걸음을 하다가 필경은 꼬리를 문틈에 끼운다는 말로도 해석되는 것이요, 도적개란 놈은 상습적으로 부엌간에 드나드는 것이니깐 그 회수가 많으면 뒤'장이 드러 난다는 뜻으로도 해석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말은 도적은 뒤'장이 드러 나고야 만다는 뜻이요, 도적놈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요, 또 꼬리를 문틈에 끼이는 식으로 심히 곤난한 진퇴 량난의 처지에 놓이게 마련이라는 불가피한 사태의 귀결을 말하는 것인데…

요새 남조선의 박 정희 살인 강도배들의 형편이 흡사히도 문틈에 꼬리 끼운 도적개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즉…

박 정희 살인 강도배들의 진퇴 량난의 처지를 적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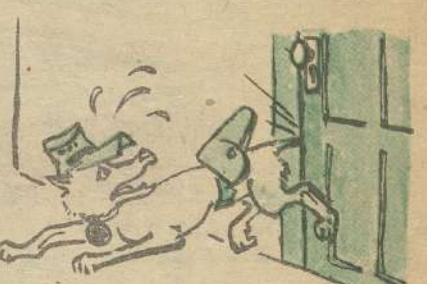
첫째로, 8 개월간이나 계엄령을 선포하고는 100여건의 《군사 포고》를 란발하고 10여만명을 검거 투옥 학살했고, 정당이라든가 단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고, 800 여개의 언론 출판 기관을 폐쇄했고, 매일 같이 살인 군사 재판을 벌렸고… 실로 동서 남북을 가리지 못하는 칼부림을 했는데…

이것은 오직 살인 강도배들에게만은 효력을 발생하는냥 싶어서 남조선 땅이 쥐 죽은듯 《고요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고요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앞둔 무시무시한 정적이였으니 앞으로 닥쳐올 뢰성 벽력의 거세참과 거대함을 마련한 것이였고, 또 실제로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남조선 땅에서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이요, 설레이기 시작한 것이요.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니 박 정희 깡패들의 뒤가 걸리게 된 것은 응당한 일인 것이다.

둘째로, 박 정희라는 애숭이가 미국과 일본 행각을 하면서 눅거리 매국 흥정을 벌렸는데 《정치를 배워 달라》 《일본 정신으로 국군을 건설하겠다》 《미국이 한국을 령도하고 있는데 대해서 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뇌까렸고, 미국의 지시대로 사무라이 게다짝과 야합하여 《한일 회담》이라는 매국 흥정을 추진시키는데 《일본의 요구에 완전히 순응》(일본 아세아 국장 이세끼의 증인) 하는데 까지 이르러, 사무라이 재벌인 미쯔비시는 물론 하다 못해 모리나가 알사탕 장사까지 서울 지점장을 임명하고 트렁크를 꾸리는 판국이 벌려졌은즉 이에 대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가만이 있을 리가 없은 것이니 《박 정희는 매국 행각의 진상을 밝히라》는 비'발치는 문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박 정희로서는 매국 행동의 진상을 밝힐 수도 없는 것이요 세상에 공포된 내막을 쏙쏙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 돼서 꼬리는 문틈에 끼였지만 아프다고 깽깽거릴 수도 없는 것이고 꼬리를 뺄 수도 없는 것이고 진퇴 량난의 함정에 빠진 셈이라 할 것이요.

세째로, 박 정희 알거지들이 얼마나 궁하고 게걸이 들었는지 총칼을 빼들고 공장이고 상사고 간에 닥치는 대로 탕쳐 먹다 못해 녀인들의 옷고름과 팔소매까지 뜯어 먹는 지랄을 8개월간이나 한 결과로 이제는 못이나 전구알 하나 만들 수 없는 형편으로 경제가 거덜이 났은즉, 늘어 난 것은 실업자요, 절량민이요, 류랑 고아요, 불환 지폐요, 세금이요, 기아와 빈궁 뿐이고 또 확장된 것은 경찰이요, 감옥이요, 군사 재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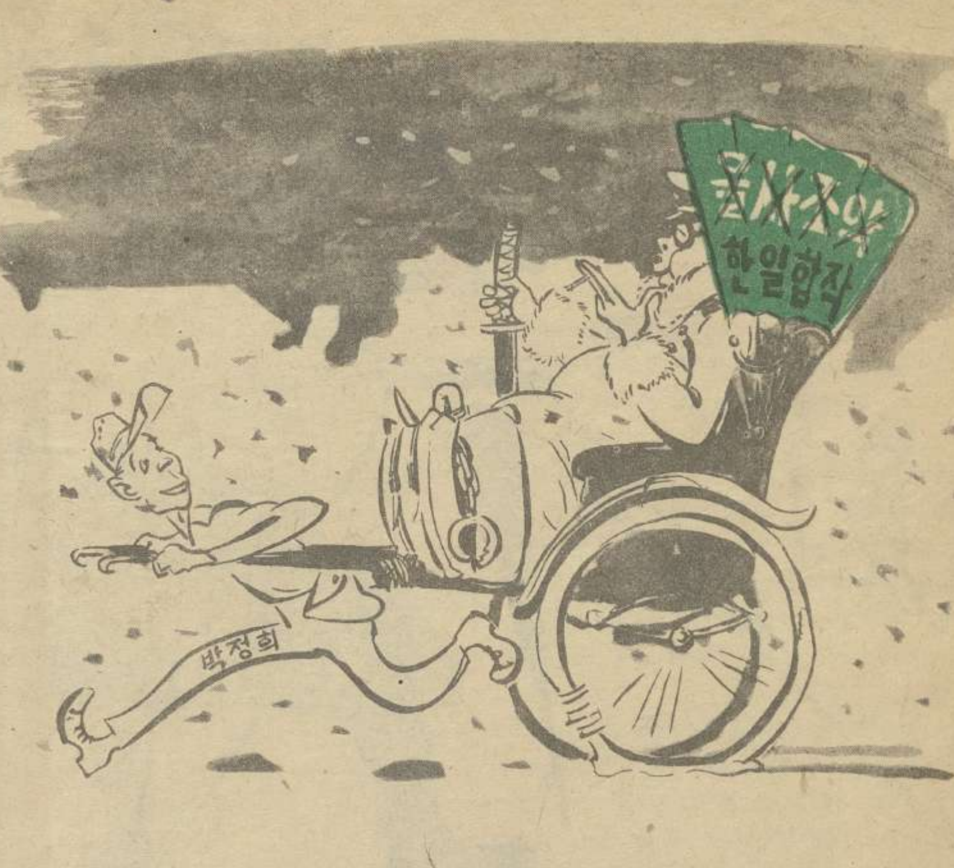
깡패의 광란 뿐이고 또 높아가는 것은 인민들의 신음 소리요, 못살겠다는 아우성소리 뿐이요, 한즉 살인 강도 집단을 뒤집어 엎어야 겠다는 결론 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고 이 결론이 행동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니 박 정희 깡패들이 목이 메고 뒤가 걸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다.

헌 판국에 깡패 일당은 더욱 미친듯이 칼질을 하면서 그 주제에도 인민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이른바 《재건 국민 운동》이라는 도깨비 놀음을 벌리고 있는데… 박 정희 깡패들의 이 《재건》 놀음이라는게 일본 사무라이들이 패망할 때 하던 《국민 총동원 운동》 그대로 본 딴 괴상 망칙한 것이 여서 죽어가는 저들의 운명을 구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판국이니 임종의 시각은 경 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즉… 《재건》이라는게 깡패들의 할애비 이름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죽어가는 작자들의 만병 통치약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니 이 오물들이 어차피는 《재건 장의사》에 의해 《재건 화장터》에서 처리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문틈에 꼬리를 끼운 도적개는 몽둥이로 처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재작년 4월에 리 승만을 박살내든 그 본사태로 박 정희 살부랑당들의 코'대를 꺾어 놓고 뒤'다리를 분지르고 양키들과 함께 태평양의 거센 물결 속에 처 박을 때는 온 것이고.

이제 되는 날 남조선 동포 형제들도 북반부의 부모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설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남북의 형제들이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될 것이며, 조선 사람의 정신으로 조선 사람의 영예로, 조선 사람의 긍지로, 조선 사람의 힘으로 보람찬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서울 거리에서



—이것은 이등박문 각하께서 타시던 것입죠!
…리 완용에게서 물려 받은 것이랍니다

박 승히 그림

남조선의 이모저모

—임자 어째 밖에서 떨고 있나?
—흥… 말말게 세리 올가봐 망보는 중이네

달—웬한 많은 백성들 굶은 배 움켜 쥐고 그나마 있든 공장 기계 소리 멎은지 예'날인데 저게 웬 소리인고! 다만 지폐 공장만이 쉬지 않으니…

《국토 건설대》의 행렬

한 부인의 기막힌 이야기

《성한 자식 둘만 고아원에서 맡아주면》 《나머지 세 식구》야 《목숨을 끊는들》 무슨 한이 있겠소 《조선 일보》

1월 1일 새벽부터

허 능택 그림

일본 독점체들은 각종 《사절단》과 《조사단》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 통치배들과 밀담을 거듭한 후 침략의 지반을 닦기 위한 각종 조사, 정보 자료들을 거두어 가고 있다.

그전 솜씨에 새 방법

—여보게 박 정희 내가 전에 실어가던 길은 좀 불편해…
이번에는 가기 헐하게 길을 이쪽으로 옮깁세

조 명식 그림

군사 깡패들의 《각료 회의》에서

로 철

—박 《의장 각하!》 선춘 벽두에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무부 《장관》?

—케네디 대통령께서 새해를 축하해서 《각하》께 《친서》와 함께 《각하》 이하 전체 우리 《장관》들에게 선물을 보내 왔습니다.

—오 황송한 일이로다! 《장관》!

—옛!

—각 《장관》들을 소집하여 즉각 전달식을 거행할 것! 전달식은 《죠구고 호따이 시기》식으로 《엄숙하게》 거행하라!

—핫! (사이)

—각 《장관》 차렷! 지금부터 박 《의장 각하》 께서 케네디 대통령이 보낸 《친서》 랑독이 있겠습니다 일동 《경례—》

—에…《친서》를 랑독할테니 잘 들어라! (미스터 박! 새해 축하합네다 당신 미국 방문했을 때 무기와 함께 밀가루, 저'가락, 설사약 《원조》 많이 많이 달라고 애걸한 것 나 잘 기억하고 있습네다) 오! 얼마나 기억력이 월등하신 대통령이냐!

—미국 쪽을 향하여 일동 《경례—》

계속 읽겠다. 에…(이것은 당신 미국식 《생활 양식》 잘이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나 높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네다) 이건 즉 나, 박 《대장》을 칭찬하는게다 알겠느냐?

—《대장》을 향하여 일동 《경례》

—또 읽겠다 에… (새해에는 《야마또다마시》 더 많이 많이 수입해서 미국의 《원조》 더 잘 리용할 것 나 바랍니다》)…에, 이에 대해서는 일전에 이께다 상산 과 충분히 약속을 해 놓았다 알겠느냐!

—일본을 향하여 일동 《경례》

—또 읽겠다 (새해 맞이해서 나 《군사정권》의 실정 고려하여 당신과 당신 부하에게 《상징적》인 선물 보내니 받아 주시오 굿드바이) 참 케네디 대통령의 《친서》와 《상징적》인 선물을 받고 보니 황감하기가 그지없고 몸은 비록 《한국》에 있으나 마음은 미국에 가 있는 감이 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일동 《경례》

—자 그럼 각 《장관》들! 차례차례 나와서 선물들을 받아라, 먼저 내무부 《장관》!

—핫! (받아 가지고 팍을 열어 본다) 앗, 이건 홍두깨…

—홍두깨? (흠, 세루로이드로 만들었군…) 내무부 《장관》! 이게 곧 우리 《군사정권》의 실정을 고려한 《상징적》인 선물인데 미국 량반들이 《원조》 준 그런 무기를 가지고 《빨갱이》들을 더 많이 잡으라는 뜻인 줄 안다, 안그러느냐!

—핫!

—그 다음에는 농림부 《장관》 나와서 받아라!

—핫! (팍을 열어 본다) 앗, 곰팽이 냄새 나는 밀가루…

—밀가루? (흠, 곰팽이가 지독히 쓸었군…) 농림부 《장관》! 이것도 그, 《상징적》인 선물인데 농민한테서 량곡을 모조리 긁어서 실어 보내고 그 대신 곰팽이 냄새 나는…, 아니 거시기 그, 미국 냄새 풍기는 밀가루 많이 《원조》 받아다 팔아 올려야 한다는 뜻인 줄 안다. 안그러느냐!

—핫!

그 다음에는 보건부 《장관》 나와서 받아라.

—핫! (열어 보고) 앗 설사약…

—설사약? (흠, 친절하게도 랭수와 함께 마시라고 용법까지 적어 보내 주셨군…) 보건부 《장관》! 이것도 그, 《상징적》인 선물인데 《한국》의 농민들과 로동자들이 칡뿌리, 나무껍질 바람벽 흙을 먹어도 미국의 이러한 《원조》가 있는 이상 똥구멍이 메여질 걱정이 없다는 뜻인 줄 안다. 안그러느냐!

—핫!

—(사이)

자, 그럼 이젠 외무부 《장관》! 나에게 온 선물곽을 열어 보아라.

—핫! 팍이 크고 무거운 걸 보니 이건 외교 의례상 관례로 보아서 상당히 비싼 선물인 줄…

—암, 물론 그렇겠지, 《대장》 것이 《장관》 것들과 같겠느냐, 어서 열어 보아라

—(열어 본다) 앗, 큰 나무'개비가 두쪽…

—무엇이? 나무'개비? 그게 무엇이냐?

—《각하!》 혹시 이건 쌍지팽이가 아닌가요? 장차 다리가 부러지는 날, 이걸 짚고 미국으로 도망오라는 《상징적》인…

—닥쳐!

—《각하!》 여기 렛델이 붙어 있는 뎁쇼. 《특제품 저'가락》이라고…써 있습니다

—무엇이? 저'가락? (흠, 골골이도 보내주었구나…) 각 장관 들어라!

—핫!

—내 요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는 목재가 없어서 탈이니 저'가락을 많이 《원조》 달라고 여쭈어 보았었는데 자, 보란 말이다. 뼁끼칠도 하고 라체화랑 서부 활극 그림도 새겨 넣고 이게 얼마나 멋드러진 저'가락이냐 말이다

—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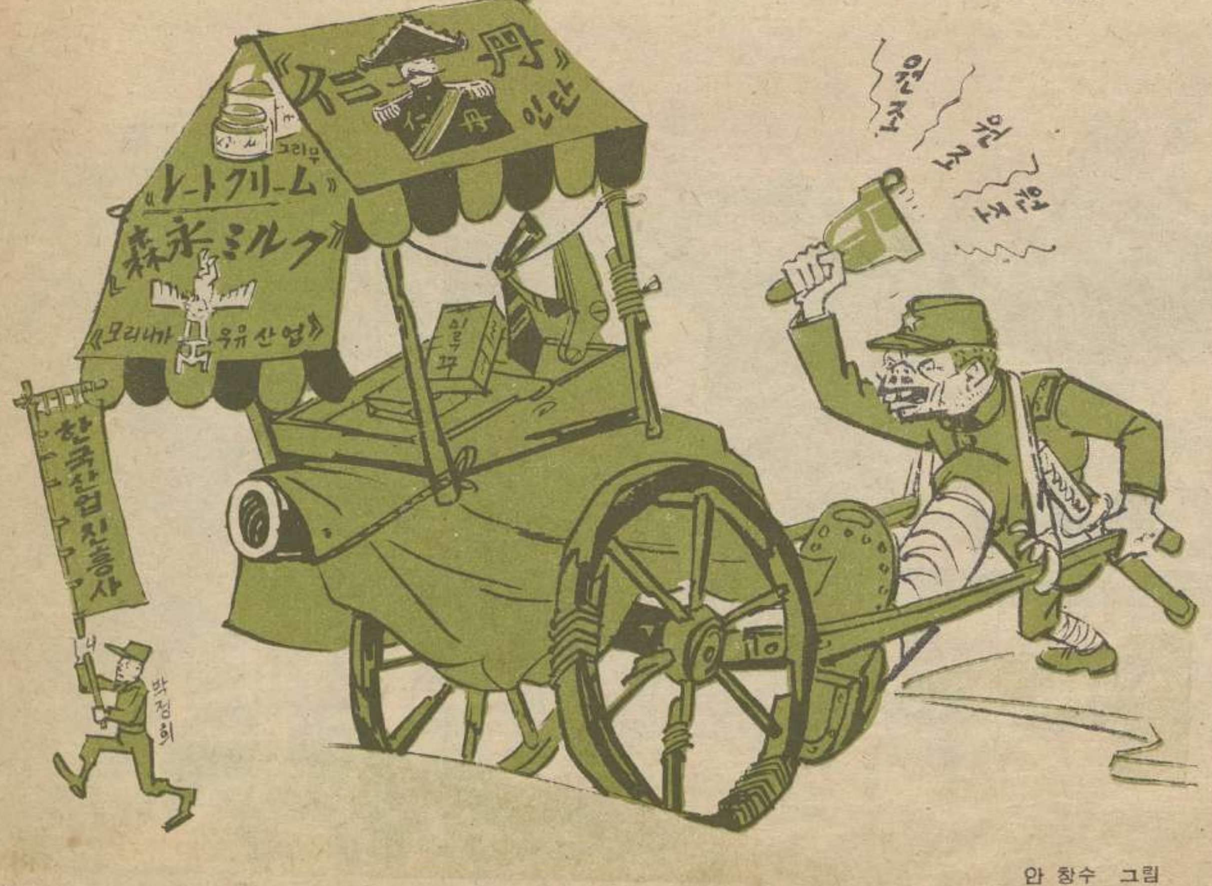
참, 이 선물만 보더라도 케네디 대통령께서 우리 《정권》의 실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한국》 《신민》은 모두 이 《상징적》인 선물처럼 쌍지팽이…아니, 거시기 이런 《크고 멋드러진》 저'가락을 사용하라 즉각 《포고령》을 내려야 할 줄 안다

안그러느냐!

—핫! 일동 다시 한 번 미국을 향하여 《경례》

침략자

소위 원조의 미명하에 《한국 산업 진흥사》를 조직한 15개의 일본 독점체들은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의 잔당들을 배경으로 남조선에 피묻은 침략의 촉수를 뻗치려고 책동하고 있다.



안 창수 그림

빨리 받아 내라!

백 인균 그림

중소《기업소》에서

—박 선생 계시우? 세금 받으려 왔소!

—저 이 집에 살던 박 선생은 벌써 한달전에 제분소랑, 집이랑 몽땅 차압 당하고 저 신설동 판자'집으로 이사갔는데요

(사이)

—박 선생 있소? 세금 받으려 왔소다!

—저, 박 선생인지, 박 서방인지 하는 그 사람은 한 보름전에 판자'집을 헐리우고 저 수표교 다리 밑으로 옮겨 갔는데요

(사이)

—박 서방 있는가? 세금 받으려 왔네!

—저 박 서방인지 박 거지인지 하는 그 사람은 저하고 여기 토관 속에서 살다가 한 열흘전에 공동 묘지로 옮겨 갔는뎁쇼

—공동 묘지? 죽, 죽었단 말이냐?

—예 이를테면 이 《대한 민국》의 천하에서는 제일 편안한 데로 이사간 폼입죠…

—…?

남조선 군사 깡패 두목 박 정희는 딸라 국물을 더 얻어 먹기 위해 자기 상전인 미제에게 열광적으로 충성심을 맹세하고 있다.

충성의 대'가

케네디-수고했네 자네야 말로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란 말야!

백 인균 그림

《국토 건설장》 에서

박 일

…저 대장님, 말씀 좀 할게 있는 데요…

무슨 말이냐?

—저, 저는 여기 끌려 오기전에 대학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끌려 오다니? 《자원해서 왔다》고 말 못할가, 망할 자식!

—예,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년하장을 보내왔더구만요…

—그래서 어쨌단 말야?

— 그런데 그 년하장에 미시'가루 소포도 함께 부쳤다고 써 있기에 혹시 그 소포가 왔나 해서 찾으려 왔는데요…

—소포?

—예, 미시'가루 소포·· 정초에 먹으라고 하면서 저의 옛 제자들이 보낸…

—네 이름이 뭐야?

—리 동선, 《국토 건설대》 군용 도로 건설 대대 3 중대 5 소대 《로무자》 리 동선입니다.

—거기서 기다려! (안에다 대고) 여보게, 거게 소포 온게 있나? (사이) 있어? 이리 보내 주게. (리 동선을 향하여) 네 이름이 뭐라고 했어?

—리 동선입니다… 대장님.

—그래? 그런데 이건 네 소포가 아냐!

—아닙니다. 대장님 바로 그 소포입니다. 거기 리 동선 앞이라고 제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 이 자식이 아니라는데두! 네 이름은 《로무자》 리 동선이라고 한다지? 그런데 여기 소포에는 리 동선 선생님이라고 써 있단 말야! 어데 박 정희 《각하》 께서 《지도》 하시는 이 《대한 민국》에서 미국 량반이나 《군사 정권》의 각 《장관님》을 제쳐놓고 감히 선생님이라고 불리울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다!

—…?

—너희들의 대장인 나도 기껏해야 《대장님》이라고만 불리우고 있는 판인데…

—그래도 대장님, 그건 저의 옛 제자들이…

—닥쳐! 너는 《로무자》 리 동선이지 선생님은 아니란 말이다. 알겠느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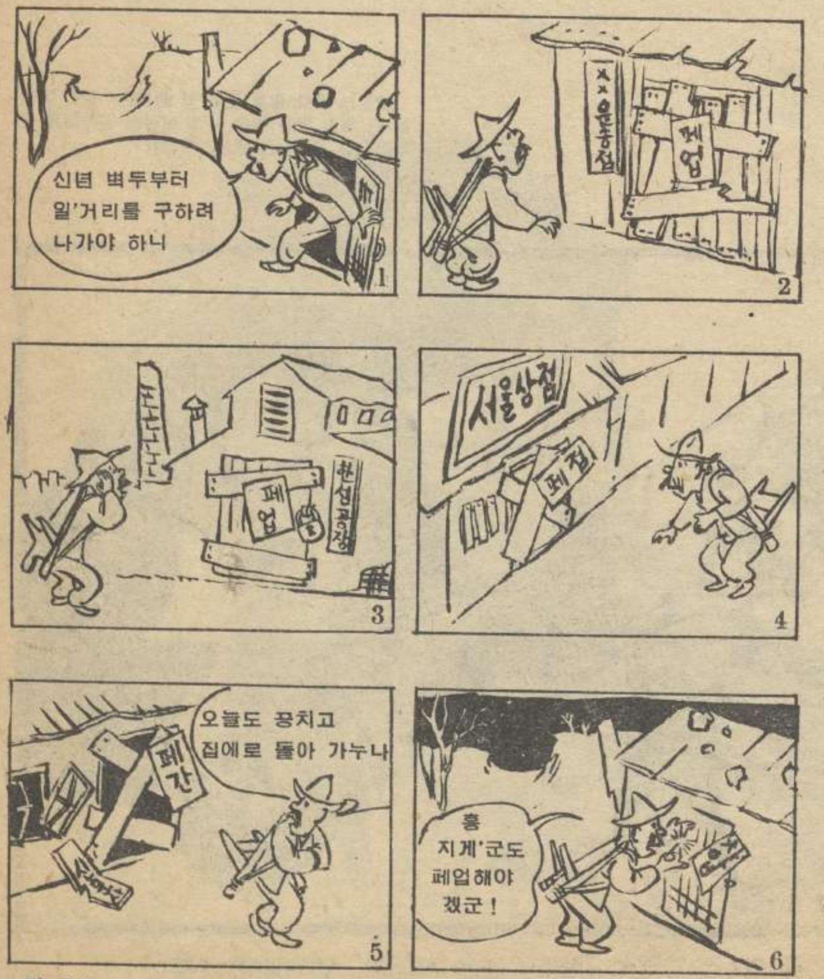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 소포는 《로무자》 리 동선, 즉 네것이 아니라 리 동선 선생님의 것이니 만큼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보관해 두기로 하고 너는 《대장님》의 《귀중한》 시간을 5 분이나 빼앗은 《죄》로 로무 기간을 5 일간 더 연장함을 《명령》한다. 알겠느냐!

헛나발

백 인균 그림

망할 세상 (10)

(페업 사태)



박 승히 그림

농촌에서

최 정희

—잠 잠간 기다리오! 새해 첫날부터

투신 자살이라니, 잠간 참으시요

—놔주시오, 놔주시오! 원한 많은 이놈의 세상, 죽음으로……

—잠, 잠간! 왜 이리 짧은 소견을…?

—아, 아! 이 내 신세 타령을 좀 들어 보십소. 농사라고 수해, 풍해, 충해, 한재 다 겪고 나니 겨우 작년의 절반 소출도 못 거두었는데…

—그것도 천만 다행…

—그런데 마당질도 하기 전에 《농지 상환곡》 《토지 수득세》 무어요 하고 몽땅 털리우고

—그건 바치긴 바쳐야지…

—《수세》 《지세》 《소득세》 《지방 자치세》 《비료'대》 또 무엇 무엇해서 한간 짜리 초가'집마저 차압해가고… 떨고 있는데 웬 녀석들이 또 달려 들어서 《신생활 운동》에 참가해서 그 휘장을 달고 다녀라, 그것만 달고 다니면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안 입어도 떳떳할 것 같으니 꼭 사 달아야지 만일 안 사 다는 날에는 징역 살이를 면치 못할 줄 알라고 울러 대니

— 으흠, 그것도 사 달긴 달아야 하고…

—이 남조선 땅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터인 길은 오직 죽음의 길 밖에 남지 않았으니 어서 인정 쓰는 줄 아시고 나를 놓아 주시오, 어서…

—잠, 잠간만! 정말 이젠 물게 하나도 없소?

—두 빈손만 남았습니다요…

—그럼 자살하기 전에 그 헌옷이라도 벗어 놓으시오

—?

—어서!

—…당신은 누군데?

—나는 박 정희 《의장》 《각하》의 《어지신 분부》로 금번 새로 발족하게 된 《리재 농민 구제 위원회》의 《회비》를 징수하려 온 사람이오.

—…?

—아, 잠간만! 그 감투 쓴 것까지 벗어 놓고… 그 다음엔 마음대로 행동하시오. 억지로 인정쓰진 않겠소. 죄가 될가바 …

당장 내 놔라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달성 광산》 로동자 140 여 명은 근 반년 동안에 한 푼도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김 진호 그림

남조선 농민들은 군사 깡패들의 총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추곡 수탈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손만 대 봐라!

송 시엽 그림

미제의 고용 각서리떼

미제 상전을 위하여서라면 그 어떤 궤변도 황당한 거짓말도 서슴 없이 늘어 놓는 것이 유일 무이의 《사명》인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 (언커크)》의 금번 년례 보고는 사실상 그가 이 이상 자신을 변명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을 따름이다.

언커크—민주주의 진렬장이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표본이다

—고무적 모범이다

김 성엽 그림

망하는 집안에 말썽도 많다

날이 새면 1962년 새해다. 백악관에서는 밤새도록 《송구 영신》하는 《연회》가 벌려졌다. 처음에는 제법 위풍을 돋구고 앉아 있던 미국 장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세를 허뜨리고 게트름 하는 자의 수가 늘어 간다.

케네디는 얼마전 라틴 아메리카 방문 당시 얻어 맞은 돌멩이 규탄, 시위 등의 푸대접 받은 불쾌한 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 시원한 공기라도 쐬여 보려는지 발콘으로 나가 버렸다.

케네디가 《연회장》에서 자취를 감추자 장관 나부래기들의 화제는 더욱 떠들썩 하기 시작했다.

—지난 1년은 우리 미 아메리카에 있어서 아주 아주 불쾌한 해였소

국방 장관 맥나마라가 취한 김에 넋두리를 풀자 옆에 있던 러스크가 원숭이 같은 낯짝을 찡그리며

—집어 치우시요, 기우러져 가는 아메리카의 책임이 나한테 있단 소리요? 뭐요?… 앙? 그렇지 않아도 나는 1961년이란 글'자만 봐도 진저리가 나는데… 채이…

러스크 옆에 앉았던 재무부 장관이 코'방귀를 뀌며

—하, 이거, 맥나마라씨! 당신 진짜 맥나는 소리 작작하오, 미국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가는 줄 아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로케트 하나만 봐도 당신 책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돈이 아깝소. 돈… 뜨지도 않는 공 같은 로케트…

—재무부 장관! 그럼 당신은 허재비였댔소?… 난 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했을 다름이요

이 소리에 상무부 장관 호지스를 비롯해서 해밀톤 (국제 개발국장)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재무부 장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나도 생각하오 (호지스)

—옳소 (해밀톤)

—무슨 일리가 있단 말이요? (맥나마라)

—쿠바만 보시요 (호지스)

—쿠바?

맥나마라의 말끝은 흐려진다

—그렇소, 미국이 쿠바의 플라야 히론 상륙 실패는 정말 대 아메리카의 망신이요

—닥치시요!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요 케네디 대통령 자신이 직접 조직한 일이니까!… (국방 장관)

—하—이것 싸움은 그만 둡세다 (중앙 정보 국장)

—아니 나도 한마디 합세다 라오스에서는 그게 무슨 꼴이요 (농무 장관)

—라오스가 어쨌단 말이요? (국방 장관)

—지금 노사방은 한 구석에 쫓겨 가서 크게 숨도 못쉬고 있지 않소 (농무 장관)

—그거야 국무 장관이 외교를 잘못한 탓이지요. (맥나마라)

—외교를 잘못 했다구? 외교는 대통령이 직접 장악하고 있는 줄 당신 모르오? (러스크)

—그럼 당신은 로보트란 말이요 (맥나마라)

국무, 국방 장관은 삿대질을 하며 방금 개 싸움이 붙을듯 한데 호지스가 이것을 말려 놓으니 이번에는 국방 장관이 시비조로.

—여보 국제 개발 국장! 남조선과 남부 월남에 어떻게 원조를 주었길래 정부 위기로 소란스럽소?

—현지 대사들을 《똑똑히》 장악하고 《옳게》 지도한 국무성의 《공로》지요… 히히히

—무엇이? 당신은 그 책임을 국무성에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러스크)

이때에 발콘에 나갔던 케네디가 송장 낯짝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들어 오다가 개 싸움질한 장관 나부래기들을 훑어 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요? (케네디)

—아니 올시다 좀 토론을… (러스크)

—토론?

—사실은 토론이 아니라 그… 금번 대통령 각하의 라틴 아메리카 방문은 아주 《성과》적이였다고 축하했습지요 헤헤헤… (러스크)

이말에 케네디 얼굴은 갑자기 원숭이 엉덩이 같이 새빨게졌다.

—이 이놈들! 대통령을 어떻게 여기는거야 앙 라틴 아메리카에서 얻은 모욕이 네 놈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느끼냐? 앙? 후유…

—우리 책임이라고?

하고 몇몇 장관이 두덜거리자 케네디는 쥐였던 유리 술잔을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백악관의 설맞이 《연회장》은 쑥밭 같이 스산했다.

황 식

침략자의 망동

안 창수 그림

미제는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 책동을 음폐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 밑에 이 지역 사회주의 나라들을 중상 비방하며 소위 《공산 위협》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며 《반 중국》 깜빠니야를 벌리고 있다.

편집 위원회 |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 ㄱ—26283 | (값 40 전)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 발행 1962. 1. 20

미제는 위기에 빠진 아세아에서의 침략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에 광분하고 있다.

온갖 병신 모여든다

백 인규 그림